

독일어 표준 발음 표기에 관한 의견서^{*}

이 현 복

0. 언어의 발음 표기는 어학 교육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성학 및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정밀한 분석 및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적절한 표기 체계를 결정해야 하며, 이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 표기법은 어학 교육의 효과면에서도 상당한가를 아울러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안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어의 발음 표기법은 자국어의 음성 및 음운 체계와의 관계 및 학습수준에 따라 서로 유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찰해야 한다. 즉, 독일어 발음 표기법을 정할 때에는 한국어의 음성/음운 체계와의 관계와 독일어를 학습하는 우리 학생의 수준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안된 독일어의 발음 표기 체계에 핵심이 되는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본다.

1. 표준 발음과 표기체계

문제의 핵심은 독일어의 표준 발음의 실상과 이를 나타내는 표기 체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이 글은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에 사용할 표준 발음 표기법에 관한 의견서이다. 필자는 83년도 봄, 문교부의 요청으로 이를 작성하여 관계자 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1. 1. 독일어 표준발음

괴테가 "배우들을 위한 규칙"을 내고(1803) Viëtor 가 1885년에 발음사전을 펴내어 독일어의 표준발음 보급에 선구적인 구실을 하였으며, 이후 Siebs 의 연구로 독일어의 표준발음은 연극무대뿐 아니라 일상의 표준으로 인정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독일어 발음의 표준적인 규범으로 인정되어 온 소위 "무대발음" (또는 이를 핵심으로 하여 일상용으로 확장한 형태)은 인위적인 면이 있다 하여 실제 발음에 바탕을 둔 현실적인 표준발음을 채택 보급하자는 여론이 일어나서 근래에는 이러한 주장이 정착되는 감이 있다.

언어를 분석할 때는 실제로 쓰이는 소리말(구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대 언어학의 기본원리이므로 표준발음을 정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소리말에 바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독일에서 일어난 현실 표준발음(무대발음이 아닌) 채택운동은 언어학적으로도 온당하다고 본다.

1. 2. 발음 표기체계

표준발음이 확정된 다음에는 이를 나타내는 표기법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동일한 발음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로 달리 표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무릇 발음의 표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전사 체계가 있다. 하나는 "간략표기(broad transcription)"이고 또 하나는 "정밀표기(narrow transcription)"인 바 정밀표기는 더욱 세분하여 정밀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 가령 영어에는 학자에 따라 또는 동일 학자일지라도 목적에 따라 표기체계가 달라지므로 수십 가지의 표기체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영어뿐만이 아니고 어떤 언어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한국어나 독일어도 예외일 수 없다.

1. 2. 1. 간략표기의 장단점 : 간략표기는 낱말의 뜻을 혼동없이 구별하여 나타내는데 필요한, 소리의 차이만을 별개의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간략하고 경제적이며 학습과 교육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어를 비롯한 모든 언어의 발음 표기는 바로 이러한 장점때문에 간략표기(또는 일명 음소표기)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간략표기는 중요한 소리의 차이만을 나타내고 세밀한 발음 차이는 드러내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발음 기호와 실제 소리와 의 관계를 약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이 이같은 약정을 바탕으로 발음을 습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을 기억하고 지켜서 발음해야만 올바른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ㅂ/는 초성에서 낱 때와 유성음 사이에서 낱 때의 소리값이 [b]와 [b̥]로 달리 나타나 한 음소이므로 /ㅂ/ (b)로만 표기하게 되며 이러한 발음의 구체적인 차이는 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간략표기이다. 또한 독일어에서 실제 소리 [ɐ]와 [ʀ/ʁ]를 /e/와 /r/로 표기하는 것은 특히 생소한 기호를 피하고 일상의 쉬운 기호를 사용하자는 의도가 담긴 간략표기이다.

이 글의 끝에 소개한 영어와 독일어의 전사 자료에서 간략 및 정밀표기의 형태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음성학협회 원칙"에서 따온 영어와 독일어의 전사 예에서 처음 나온 것이 간략표기이고 뒤에 나온 것이 정밀표기이다.

1. 2. 2. 정밀표기의 장단점 : 정밀표기는 음소이하의 자세한 발음 차이 즉 변이음까지 별도의 기호를 등원하거나 또는 구별 부호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나타내는 표기법이다. 그러므로 정밀표기는 간략표기에

비해 많은 기호와 구별 부호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발음 표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복잡하고 불편하며 학습과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다. 생소하고 어려운 기호를 도입하면 인쇄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소비하는 단점이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음성학자나 언어학자가 언어 분석을 할 때나 전문 연구를 할 때 이외에는 정밀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정밀표기에는 정밀도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정밀도를 더해 갈수록 표기는 더욱 복잡하고 난삽하여 실제로 쓰고 읽는 데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같이 복잡한 정밀표기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정확한 발음을 학습하거나 교육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자칫하면 복잡성에서 오는 권태감때문에 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1. 3. 정밀표기와 간략표기의 장단점 비교

위에서 기술한 간략표기와 정밀표기의 장단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u>간략표기</u>	<u>정밀표기</u>
1) 기호의 수	최소	많다
2) 생소한 기호	피할 수 있다	사용이 불가피하다
3) 구별부호	불필요하다	필요하다
4) 경제성	간결하고 경제적	난삽하고 비경제적
5) 학습/교육	능률적	비능률적
6) 정밀도	정밀하지 못하다	정밀하다
7) 기호와 소리의 와의 약정	많다	적다
8) 이용 대상	제한없다	주로 전문 음성/언어 학자나 학도, 전공자
9) 사용범위	일반적	제한적

간략표기와 정밀표기를 비유해서 설명하면, 간략표기는 곡식을 쌀, 보리, 콩 따위의 큰 유별로 나누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정밀표기는 곡식의 종류를 더욱 세분하여, 가령 쌀을 찰쌀, 멥쌀 등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2. 제안된 Duden 의 정밀표기 체계 검토

이번에 문고부에 건의된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의 표준 발음 표기 체계는 Duden 의 발음사전과 독일어대사전에서 사용된 체계인 바, 이의 특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정밀표기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변이음을 별개의 기호를 이용하여 별도로 표기함

보기) [ç] , [x] ← /x/

(반면에 목젓소리 R/ʀ 는 /r/ 로만 간략표기하여 위의 경우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나) 비성절 모음을 일일이 반원으로 표기

보기) Familie [fa'mi:liə] ([fa'mi:līə])

다) 파찰음을 일일이 반원으로 표기

보기) ts, tʃ, pʃ

라) 성절 자음을 짧은 직선으로 표기

보기) l̄, m̄, n̄

2) 따라서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표기 체계이다.

3)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정밀표기는 고사하고 간략표기마저 사전에서 외면할 정도로

독일어의 발음 교육은 도외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기탁 외국어나 심지어는 한국어의 발음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나) 독일어 교사 자신이 정확한 발음은 고사하고 음성표기법이 생소한 형편이다. 일반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어학 교육의 필

수적인 바탕이 되는 음성학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잡하고 난잡한 정밀표기 체계를 대학 고재도 아닌 고등학교 교과서에 도입하면 교사나 학생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거부반응마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 검토자의 제안

간략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무대발음이 아닌 현대 표준 독일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표기 정밀화를 꾀함이 바람직하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e , ɛ 를 채택하여 정밀화를 꾀할 수 있다 (표준 발음의 특징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보기) Ober [ˈob:ɐ] ← /ˈo:bær/
Uhr [ˈu:ɐ] ← /ˈu:r/

- 2) 이중모음의 반원 표시는 채택하지 않고 (국제음성학협회 원칙 29항(f)) 종전대로 쓴다. 원칙 29(f)는 구별부호의 일종인 반원을 사용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 연속되는 두모음은 이중모음을 나타낸다고 약속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이다. 반달이 있다고 하여 발음교육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번거롭고 비경제적이다.

보기) weit [vait] $\text{ai} \rightarrow \text{ai}$
Haut [haut] , (au) (au)

- 3) 파찰음의 표기에 쓰이는 반원의 연결 부호도 위에 말한 원칙 29항에 의거 채택하지 않고 종전대로 표기한다 (㉞면 독일어 표기에 참조).

/dʒ, pf, ts, tʃ/ → /dʒ, pf, ts, tʃ/

보기) Pferd [pfe:ət] → [pfe:ət]

- 4) 성절자음을 표기할 때 쓰는 짧은 직선을 채택하지 않고 그 앞에 오는 중앙모음[ə]를 괄호안에 넣음으로써 후속하는 자음이 성절자음으로 소리남을 약정한다. 아니면 중앙모음을 제거하여 자음의 연속만을 표기한 채 l, m, n가 성절자음임을 약정한다.

Nabel /'na:b(ə)l / 'na:bl/ ← ['na:bl]
 grossem /'gro:s(ə)m / 'gro:sm/ ← ['gro:sm]

- 5) 강세가 있는 모음은 종전대로 해당 음절의 앞쪽 윗부분에 짧은 선을 두어 표시한다 (4의 예 참조).

4. 결 론

흔히 복잡한 기호를 도입하여 정밀한 발음 표기를 해야 올바른 발음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학습자의 수준 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므로 한마디로 일반화 할 수는 없으나 언어학과 음성학의 전문학자나 학도에게는 물론 정밀한 표기일수록 연구와 학습 및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의 초학자에게 복잡한 정밀표기를 제시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습의욕을 저하시킬 염려마저 있다.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간결한 간략표기도 정확한 발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약정의 형식으로) 사실이다. 즉, 간략표기와 정밀표기는 지니고 있는 발음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른 언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발음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간략표기를 택하되 독일어의 표준 발음을 수용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밀확만을 꾀하는 것이 국제음성학협회의 원칙과 음성/언어학의 이론에도 부합하며 음성 교육 부재인 우리나라 현실 여

건에도 맞는다고 본다.

그리고 어떤 언어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의 표준 발음 교육을 실효있게 하려면, 표기법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음성학의 지식과 훈련을 쌓은 유능한 교사들 많이 배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본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이 현복 (1982) 국 제음 성문 자와 한글 음 성문 자, 과학사, 서울.
 Martens, Carl & Peter (1965) *Phonetik der Deutschen Sprache*.
 Moulton, W. (1962) *The Sound of English and German*.
 Moser, H. (1969) *Deutsche Sprachgeschichte*.
 Abercrombie, D. (1964) *English Phonetic Text*.
 Duden 의 사전류.